

# 우리 안에 있는 소리의 세계

## 음악을 향해 움직여가는 징검다리

서우석

서울대 교수 · 음악학

국민학교 1학년 내가 한글을 깨치고 있을 때, 형은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한글을 배우는 재미에 못 이겼는지 나는 형에게 영어는 어떠냐고 물어 보았다. 형은 아주 어렵다며 뽀내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 공연히 으스대는구나”하고.

내가 영어를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한글의 글자와 영어의 글자 사이에는 틀림없이 1:1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대응의 규칙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말하자면 영어와 한글의 관계를 암호체계로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도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때에 한글을 배우는 일이 한글의 글자와 발음의 소리 사이를 연결하는 암호체계를 배우는 무렵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 외국어로 의미를 파악하는 재미

그후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당시의 그런 감정은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같으면 영어와 우리말이 그렇게도 다르다는 사실에 “세상은 어찌하면 이렇게도 지리멸렬한 것인가”하고 탄식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중학교 시절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영어보다는 수학이나 물리 같이 논리적 성격이 뚜렷한 과목을 더 좋아했다.

중학교 때에는 영어에 소홀했지만 외국어로 의미가 전달된다는 재미와 신비함을 맛보게 된 고등학교에 이르러 열심히 영어공부를 한 셈이다. 영어를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학과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우리를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의 열의 때문이었다. 지금은 서울대 교수이신 이병건 선생님이 나누어 준 프린트에는 D. H. 로렌스의 소설 《아들과 연인들》의 한 부분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탄광촌 오두막집 앞, 어둠 속에 피어 있는 수선화를 서술한 문장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감동은 어딘가 내

몸 속 깊이 숨어 있을 것이다.

어느 분야이건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앞선 사람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로 씌어진 책도 포함한다. 지금은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고, 또 컴퓨터가 번역을 도와줄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 외국어 능력을 소홀히 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 남이고, 남의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더욱 확신에 찬 외국어 실력이 필요해진다.

대학 1학년 때 서울에 한두군데 외국서적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음악책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으나 운 좋게도 음악구조에 관한 두툼한 책을 구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 때 대전 근교의 동학사에 들어가 한달 동안 그 책을 읽었다.

컴퓨터가 틀린 것에 대해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학 1학년 때 서울에는 한두군데 외국서적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음악에 관한 책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당시 나는 운 좋게 광화문 범한서적에서 원하던 책을 살 수 있었다. 두권으로 된 두툼한 책이었다. 지금은 《음악의 구조적 청취》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원서를 들고 대전 근교의 동학사에 들어갔다. 책을 다 읽고 나오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한달 동안 절반 이상 읽은 것으로 기억된다.

이 책은 쉐너(Heinrich Schenker)라는 이론가의 음악구조에 대한 견해를 그의 제자가 음악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책이다. 이 이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스무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을 했다고 하자. 그 스무개의 단어들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몇개의 층이 속해 있어 구조에 기여하는 무개가 서로 다르다. 주어와 동사가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일 테고 목적어가 그 다음이다. 주어와 동사가 심층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형용사·부사는 표면적인 것이다.

음악 역시 그렇다. 구조적인 음들은 음악을 향해 움직여가는 징검다리와 같다. 건축물로 말하자면 기둥과 같은 것이다. 집을 헐어 수리를 할 경우 최후에 기둥이 남듯이 음악 역시 기둥 외의 것은 이 기둥에 기대고 있는 것들이다. 음악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구조주의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 음악적 공간의 문제

그후 나는 구조주의에 관한 책을 읽었다. 이어 현상학, 기호학 등의 저술을 읽었다. 그 이유는 음악을 연구한다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음악을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음악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된다. 또한 음악을 기호학·사회학·심리학·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각의 학문인 음악기호학·음악사회학·음악심리학·음악경제학이 성립된다.

음악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문제는 음악적 공간이라는 문제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음들이 움직이며 놓고 있음을 보며 느낀다.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그곳 공간에 개념이 있다는 뜻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공간은 우리 의식활동의 공간이다.

공간에 대한 문제는 위상수학에서 가장 깊게 다룬다. 위상수학에서 ‘위상’이라고 하면 그대로 공간을 뜻한다. 피비우스의 피나 클라인씨 병이나 모두 특수한 조건이 주어진 공간이다. 피비우스의 피는 평면의 양면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클라인씨 병은 안과 밖의 구별이 없어진 공간이다.

이처럼 공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존재한다. 우주의 공간이 “휘어져 있고 어찌고”하는 천체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버릴 때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금강경>의 초두는 이 버림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문장을 할애한다.

### 방법론이 뚜렷한 책의 진가

위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공간이 규정된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판을 예로 들어보자. 장기판에서는 ‘차’가 가는 방법, ‘마’가 가는 방법, ‘상’이 가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판은 하나지만 각각에 주어진 위상이 다른 것이다. 음악 역시 곡마다 음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음악의 양식은 장기판에 비유될 수 있다. 모차르트의 음악과 베토벤의 음악은 그들의 장기판에서 말들이 움직이는 규칙이 서로 다른 것이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장기판은 그래도 서로 비슷한 서양의 장기판이지만, 한국음악과 인도음악의 장기판은 그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정신적 체험이다. 정신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음악심리학자들은 의식의 활동이라는 말을 쓴다. 어느 단어를 쓰든간에 음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뜻하고, 그 움직임은 장소(topos)를 필요로 한다. 음악적 공간이라는 말은 그 장소에 관한 관심이다. 이 장소의 개념은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의 세계에도 있다. 언어의 경우, 어느 시 구절처럼 그 장소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음악의 경우 그 장소는 없음, 즉 무(無)의 셈이다. 소리는 우리 밖에는 없고 우리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

### 고침

《출판저널》 제223호 15쪽 기사중 평화출판사 대표는 ‘허창성’, 24쪽의 전원문화사 대표는 ‘김철영’으로 바로잡습니다. 참고로 장인행 대표는 평화출판사의 계열사인 진선출판사 대표임을 알려드립니다.